

CONTENTS

2017.8

- 전국한우협회소식
- 22 중앙회 소식, 도지회 및 시군지부 소식
- 특집
- 27 농협중앙회 정상화 촉구
- 34 김영란법 개정 기시간담회
- 37 한민족과 한우 출판기념회
- 39 도별 한우산업 발전간담회
- KISTOCK
- 44 2017 국제축산박람회, 9월 21일부터 24일 대구에서 개최
- 한우자조금 뉴스
- 46 한우, 홍콩인들의 입맛 사로잡을 현지 마케팅 강화
- 이슈
- 48 전북도지회,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기고
- 52 한우산업 생산·유통 진단
- 축산과학원 코너
- 60 한우 거세우 근내지방을 높이기 위한 방안
- 컨설팅
- 66 한우 송아지 질병예방
- 상담사례
- 73 무허가축사 상담 사례
- 짧은 이야기
- 80 소 관련 꿈 해몽



월간 **한우마당**

제18권 제8호(통권130호) 2017년 8월 2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홍길 인쇄처 한국농어민신문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화 (02) 525-1053, (02) 597-2377

팩스 (02) 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 소식

● 중앙회소식

한미 FTA 재협상 관세철폐 기간 연장·세이프가드 축소 해야 성명서 통해 한우농가 입장 표명

우리협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재협상을 통해 지난 2008년도와 같이 농업을 철저히 희생시킨 과오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쇠고기 자급율은 50% 이상 유지하고, 공익기능의 대표적인 한우산업이 농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기준을 27만톤에서 최대한으로 낮춰 국내산 쇠고기 소비활성화를 보장 △단계적 관세 철폐기간 15년을 연장해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모색 △30개월 미만 수입 쇠고기 인증을 민간이 아닌 국가차원으로 확대 및 수입위생조건 강화 △한우도 미국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입위생조건 체결 등을 개정협상의 내용으로 제안했다.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율을 올리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1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미 FTA 재협상 자세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한우 자급률이 바닥인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국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10만 한우농가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지방육(2~3 등급) 한우고기 할인행사' 개최

롯데슈퍼, GS슈퍼마켓에서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

우리협회, 한우자조금, 농협이 공동으로 '여름철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개최했다.

3등급의 한우고기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할인행사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롯데슈퍼(460개점), GS슈퍼마켓(31개점)에서 진행했다.

3등급의 등심·안심·채끝 등 스테이크(100g 기준)는 시중가격 대비 22.9% 할인된 가격인 3,980원, 불고기와 국거리(100g 기준)는 37.3% 저렴한 1,980원에 판매됐다. 이번 할인행사는 한우에 있는 양질의 단백질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아미노산을 조성시켜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한여름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만큼 폭염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기력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를 촉진코자 기획됐다.



아름다운 일자리 앞장선다

한우협회, 에덴복지재단, 태우그린푸드
업무협약체결

우리협회와 에덴복지재단, 태우그린푸드는 지난 17일 태우그린푸드 사옥에서 중증장애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협회와 에덴복지재단 행복공장만들기 운동본부, 태우그린푸드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 및 후원개발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각종 후원행사 등과 중증장애인의 평생일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립지원을 위해 행복공장만들기운동 등에 배분해 기부하게 된다.

한편 체결식 후에는 태우그린푸드 3층에서 마련된 ‘행복공장’현판식이 이어졌다. 중증장애인들은 추후 이곳 공장에서 포장 및 선별 작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이번 협약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쓸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 할 것”을 강조했다.

태우그린푸드 조규은 대표는 “단순 기부를 넘어

‘행복공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중증장애인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부 미스터리쇼퍼 활약, 한우 둔갑률 하락

우리 협회, 서울시 업무협약, 상반기 적발률 3.7%
한우협회와 서울시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어 미스터리쇼퍼(손님을 가장해 매장 방문, 서비스 평가하는 사람) 주부들을 운영한다. 올 상반기 22명의 주부들이 미스터리쇼퍼로 활약해 한우둔갑 판매업소 17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내 한우판매업소 531개소를 방문, 매장에서 판매하는 한우고기를 구입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한우 확인검사를 진행했으며, 비한우형으로 판정받은 업소는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하는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동안 적발한 업소 17곳 중 미국산 등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10곳,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7곳이다.

이번 상반기 한우 둔갑판매 적발률은 3.7%로 지난해 동기간 적발률 6.4%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길 회장은 “우리협회와 서울시간의 업무협약으로 미스터리쇼퍼 활동을 매달 실시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우리 결엔 우리 한우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에서 한우 홍보
우리협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귀농귀촌 체험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 한우불고기 시



식회 및 한우부위 맞추기 게임 등을 진행하는 한편 팜플렛 등을 이용해 한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수입육 홍보, 검역본부 지탄

중앙회 성명서 발표, 광우병 통제 만전 사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지난 달 20일에 발생했으나 검역본부는 그 다음날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홍보 및 소비자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우리협회는 이를 ‘수입쇠고기 홍보행사’라고 지칭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광우병이 터진 중대한 시점에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를 홍보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육 홍보가 아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검역주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며 검역본부장의 사죄를 요구했으며, 검역본부는 광우병 통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우 이력제 홍보 및 한우의 안전성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사업 등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중히 사과했다.

김영란법 개정 촉구 및 잠정 중단 요청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주최, 규탄대회 개최
우리협회를 비롯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290여 소속 협·단체는 지난 29일 ‘김영란법 시행 잠정 중단 및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 시장 경제의 왜곡현상을 낱알이 밝혀 법 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한 이번 자리에서 김홍길 회장은 “한우는 금품이 아닌 농촌의 근간으로써 국내산 농축수산물물 김영란법에서 제외해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 없다”며 “국내산 농축수산업의 더 이상 피해를 방지하려면 추석 전 개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농가 회원화 추진 현황

1) 동의서 접수 현황(2017. 8. 21일 기준)

지회	농가수 (2016.11. 농림부)	동의서 접수현황		
		1차 목표 농가수	동의서 접수	비율 (%)
경기	6,104	3,031	352	11.61
강원	8,090	4,017	358	8.91
충북	5,603	2,782	692	24.87
충남	13,921	6,913	186	2.69
전북	9,866	4,899	1,293	26.39
전남	19,775	9,820	475	4.83
경북	21,470	10,662	150	1.41
경남	13,251	6,580	84	1.28
울산	1,814	902	63	6.98
제주	792	393	0	0
합계	100,686	50,000	3,653	7.31

2) 동의서 징구 독려

- 1) 회원가입 동의서 징구 1차 목표 : 50,000명 이상
- 2) 독려 내용 : 직원 도별 담당제 시행, 지회·지부 독려, 월별 점검 회의

3) 우수지회·지부 시상 : 동의서 징구 우수지회·지부 시상 추진

3) 향후 추진 사항

- 1) 시행 시기 결정 : 정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회원가입 동의서 징구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정함
- 2) 자조금 거출금액 : 한우자조금 대의원에서 자조금 거출금액 조정 추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피해 알린다

청탁금지법연구회에서 한우산업의 피해 알려 우리협회 김홍길회장은 지난 30일 청탁금지법 연구를 진행하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탁금지법연구회에서 개최한 발표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한우업계의 현실’ 이란 주제로 한우농가의 피해현황을 알렸다. 김 회장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명절선물 수요급감, 한우식사 기피 등으로 인해 한우농가의 피해가 크다”며 “국내산 농축수산물 보호하기 위해 기준 가액을 중량으로 설정하던가,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을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지회·시군지부 소식

강원도지회

주부 400명 대상 농장체험교육

강원도지회(지회장 박영철)는 지난 23일, 주부교실 중앙회 40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농장체험교

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주부 400여명은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한우를 체험한 뒤 한우불고기 식사 및 판매장 방문 등을 진행하여 한우의 우수성은 물론 소비촉진 효과까지 이뤄졌다.



대전·충남도지회

세종시지부, 생산성 향상 교육

세종시지부(지부장 윤석명)는 지난 23일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생산성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



전북도지회

완주군 지부, 지역 한우농가 정책교류 간담회

완주군지부(지부장 김영만)는 17일 고산미소육 가공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지역 한우농가 정책 교류 일환으로 전주시 한우농가를 모시고 간담회

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부 미설립 지역인 전주시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완주군지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윤섭 전북도지회장과 전주시청 관계자가 함께 자리해 간담회 취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우자조금과 완주군지부의 주요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한우협회의 주요 업적과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농가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무허가 적법화를 진행함에 있어 농가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해 농가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전주시 한우농가 29농가 중 18농가가 참석해, 12농가가 회원가입의사를 밝혔다.



제6회 전북미경산한우 품평회 개최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윤섭)와 전북대산학협력단이 주최하고, 전북미경산한우협동조합이 주관하는 미경산한우 품평회가 9월13일 8시 익산 축림에서 개최된다.

전북미경산한우는 고급육의 차별화, 수급조절, 한우개량을 목적으로 6년전부터 꾸준히 브랜드

화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의 미경산 한우는 3천여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금번 품평회에는 30두가 출품될 예정이다.

정윤섭 전북도지회장은 “한우소비위축과 공급물량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한우산업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미경산 한우의 브랜드화는 절실한 상황이다. 수급조절기능으로써, 또한 차별화된 고급육으로서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지회에서는 미경산 브랜드로 해외수출시장을 겨냥하겠다는 계획을 실천중에 있으며, 미경산한우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우산업의 작은 돌파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도지회

전남명품한우 대축제 성료

전남도지회(지회장 안규상)와 영암군지부(지부장 안상길)는 제 6회 전남명품한우 대축제를 지난 7월 29일, 30일 양일간 영암 월출산 기찬랜드 내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최근 개장해 많은 물놀이 관광객이 붐비는 곳에서 열린 명품한우 대축제는 한우고기 할인판매 및 시식회, 다트게임,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집 1 농협중앙회 정상화 촉구

“농협중앙회 적폐청산 없이 농민·농업 살길 없다”

한우협회, 농협 적폐청산 촉구, 집회 예정



우리협회(협회장 김홍길)은 농협의 적폐청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방침이다.

협회는 농협중앙회 적폐청산을 위한 집회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지난 22일 제 3차 이사를 개최했다. 그동안 농민보다 조직운영에만 급급해온 농협의 적폐 청산없이 농업·농민이 살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우리협회는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퇴임 후에도 월 500만원(전무·대표 300만원)에 차량·기사를 제공하는 몰염치한 짓을 성토했던 바 있고, 농협은 이를 폐지했다.

우리협회가 농협을 적폐라고 규정한 이유는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전관예우 같은 몰상식한 처사와 구호에만 그치는 농가소득 5천만원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며, 더 근본적인 문제에 이유를 두고 있다.

농민 권익 신장을 위해 만든 특별법이 농민 혜택은 미미한 반면 고비용의 조직 경영에만 치중함으로써 대부분 농가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농민을 배제한 조직운영으로 농민의 주장은 배려하지 않았으며, 농업관련 사업과 시설운영이 농가 비용절감이나 수익증대보다 조직경영비 충당에만 주력했다. 여기에 농협의 독과 점이 창의적인 농업을 가로막고 있다.

농협의 구체적인 청산과제로는 ① 법의 목적대로 농협의 경영성과가 좋으면 농민은 그만큼 힘들게 되어 있는 조직 경영 방침을 농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 ② 품목별 연합회를 통해 전문화시켜 시급한 농업경쟁력을 높인다 ③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탈피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해 중앙회 사업은 조합 또는 민간으로 이관 ④ 농민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회장의 이중급여 회수 및 중단, 중앙회 이사들의 과도한 수당(월 400~500만원)지급 중단 △계통간 거래 수수료 폐지로 농가 부담 완화 △농민 권익시설(사업)의 운영 공개와 농가 참여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우분야의 농협 점유율을 보면 한우사료 70%, 공판장 한우 도축 비율 60%, 정액공급 100% 등에 이르고 있어 이들 사업이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만큼 농가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점을 직시하여 사료값 인하, 공판장 수수료 인하, 출하예약제 개선, 정액공급체계 개선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천명했다. 더불어 2015년 농협 사료 첨가제 비리 사건시에 발생한 수십억원이 농가 부담이었으므로 즉각 농가환원 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사료공장 등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축협 등에 이양할 것과 공판장은 대한민국 전농가를 위한 시설이므로 농협만의 것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당장 철폐되어야하며, 현재 독점 체계인 정액 생산의 다원화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협회는 “농민들의 지탄대상인 농협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과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실정을 인식하여 10만 한우 농가들의 요구가 헛되지 않기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적폐청산 요구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적폐청산 없이 농민·농업 살길 없다.
농협적폐가 청산되어야 농가소득이 늘어난다.

I. 농협이 적폐인 이유 : 농협의 본연 임무 망각

- 농협은 법률 목적상 농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민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시스템이 목적 달성이 어렵고 협동 조합 정체성이 없음.
- 농협중앙회는 NH금융과 경제지주가 조직을 지배하고 있으며, 지역 농·축협은 양대지주의 하청 계열사로 전락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농민이 주인인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농민 부담 가중, 농가이익을 배제한 농정수행, 조직 이익 중요시 등 농협의 순기능은 미미하며 역기능이 큼.

1. 목적과 다른 방향 : 조직운영 우선 → 농민권익·소득 뒷전

- 농협의 경영성과가 좋을수록 농민 부담 가중
- 농가 권익·소득보다 조직 이익에 치중된 농정 활동
- 구호와 실질 괴리 : 농민 불만 가중
 - 농가소득 5,000만원 : 구체성 미비
- 농협법 상 농민 배려(특혜) 취지 왜곡
 - 공정거래법 배제, 세제혜택(농가 직접혜택 제외)

- 정부의 특별지원과 농정수행 수단이 농가이익과 무관

○ FTA 등에 따라 시급한 생산성 향상·비용절감·유통 효율 수단 과점

2. 조직 운영상 농민의사 배제 : 농가이익과 배치되는 의사결정

-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조합원들이 공동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주적 운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협은 관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농민들이 머슴 역할을 하고 있음.
- 농민은 개방농정시대에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으며, 농협은 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3. 농민이익과 배치되는 조직 시스템

- 법률상 특혜를 오·남용하여 27개의 계열사(중앙회 3개사, 경제지주 17개사, 금융지주 7개사)를 운영하며 문어발식 사업 수행으로 타산업의 반목 유발과 그로인한 농업 이미지 상실 및 골목 상권을 위협함.
- 농협 그룹에 속하는 계열사 수는 2017년 기준 67개에 달하며, 정부의 퇴직 관료가 이들 회사의 이사, 감사 등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음.
- 이것은 이른바 ‘농피아’로 불리며, 농피아 청산 역시 농협개혁의 핵심임.
- 또한 농협중앙회는 조합지원자금 8조원을 회원 통치자금으로 사용하여 농민 이익 우선 원칙을 봉쇄하고 있음.
- 중앙회 조직의 비대화와 신용사업 중심, 정부 통제 등이 농협개혁을 가로 막고 있음.

4. 농협의 독과점이 “창의적 농업 억제” 작용

- 농협은 사료·비료·농기계 등 각종 농자재를 농협중앙회의 계통을 통해 지역 농·축협으로 구매 및 조달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농자재는 타 기업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으나 농협중앙회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조달되어 사용하고 있음. 이는 대기업의 밀어내기 갑질과 같은 행위이며, 모든 부담은 농가로 전이됨.

II. 적폐 청산 과제

1. 기본 방향의 재설정

- 농민이익 우선
- 품목별 연합회는 ‘민주당 대선공약’이자 농민의 염원
⇒ 농가 생산비 절감과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환
- 고비용 저효율 탈피 → 민간·단체 주도 농정

2. 먼저 고쳐야 할 사항 : 농가실태 회복을 위해

- 협동조합의 목적에 맞는 방향 재정립
- 회장의 이중급여 회수
- 이사 수당(월 4~5백만원) 지급 중단
- 농민실익 증대를 위한 홍보·광고·대외활동 등 실익 치중
- 농가부담 각종 수수료 폐지
- 농민 편익 사업(사료·유통·정액 등)의 공개 및 농가 참여 운영
- 하나로마트 수입산 판매 중지
-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

3. 한우분야의 폐단

농가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 실태

- (사료공장·공판장·안심축산·정액생산 공급)
- 고임금의 조직 유지에 급급 : 농민 생산성 뒷전
⇒ 농민참여에 의한 농가 주도 경영시스템 구축
 - 공익시설 수익 농민 귀속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농협의 흑자는 농가소득 편취

□ 한우산업에서 농협의 비중은 절대적임.

사료	공판장	정액
70%	60%	100%

□ 농협사료

- '16 경우 약 5% 인하 가능
 - (예) 흑자 340억원 + 중앙회 수수료 150억원 + 중앙회 브랜드 사용료 40억원 ≒ 약 530억원이 조직 이익
 - 인하요인 : 500억원 ÷ 200만톤 = 25,000원/톤(포당 500원 인하 가능)
- 짠 사료 이용 곤란 : 다른 사업(출하, 대출 등)에 묶여 짠 사료 교체 지난 사료비 절감 걸림돌
 - 배합사료보다 크게 짠 TMR 등 교체 암묵적 방해
 - 자가TMR로 사료비 절감 가능(60~100만원)
- 농협사료 과점 상태 해제 : 경쟁유발로 농가기여
 - 중앙회 사료공장 → 지역축협으로 이관

□ 공판장

- 공판기능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보다 조직경영비 우선
 - 예)음성공판장 : 소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물량 조절 없이 경비조달을 위해 최대한 도축
 - ※ 과거(서울 공판장 시절) : 집배사업소를 두고 과잉 시 물량 비축
 - 부산물 처분 투명화 조치 : 업자위주 임의처분에서 농가위주 공개경쟁 관철
 - 1마리당 20만원 이상 수취가 제고(20만원 → 40만원)
- 출하예약제의 횡포(축협조합원 외의 농가 배제)
 - 공판장이 어느 농가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기능인데 축협이용 농가만 배정함으로써 비조합원 불만 팽배
 - 공판장의 공익적 기능 전환

□ 안심축산(협동조합형 패커) → 유통 브랜드사업으로 이익위주 운영

- 정부의 생산자 보호, 유통 비용 감축, 소비자이익 구조에 실패
 - 생산자(농가)·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사업
 - 유통 브랜드로 인한 산지 생산 조직 ‘브랜드’ 붕괴
(××한우 → 안심한우)
 - 농가 비용 늘고 소비자 부담 증가
 - 경매비용·가공비용·도소매 단계 안심한우 수수료(1.9%), 검사 수수료(1.4%), 하나로마트 수수료(20%)

□ 대기업 한우산업 진입의 빌미 제공 : 위탁사육

□ 정액생산 공급

- 농협 독점에 의한 농가 선택 제한 : 개량효율 저하
 - 정액 공급 자율화(도별)와 암소에 의한 개량으로 방향 전환
 - 정액 거래 왜곡(농가 뒷거래로 만원짜리가 8~20만원 이상 호가)

- 농협을 농민주도로 운영하면 농업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 우리가 무력해 불의를 이길 수 없다해도 결코 불의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특집 2 김영란법 개정 기자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개정 약속 지켜라

9일, 청와대 앞, 효자동 파출소에서 기자회견 가져



청와대앞에서 김영란법 추석 전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위해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28개 농축수산 생산자단체가 모였다. 지난 9일 청와대 앞 효자동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김영란법 추석 전 개정을 촉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에서 농축수산인들에게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은정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의사에 반하는 생각을 피력한 바 있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심정을 외면해 실망했으며,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의 피해를 알리며,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우리협회는 효자동파출소에서 기자회견을 별도로 진행했다.

또한 김홍길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뒤돌아보면 수입 농축수산물 촉진법으로 왜곡되어 부정부패는 잡지 못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산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어 정부와 정치권은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절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흥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에 농민단체들이 모인 이유는 부정청탁금지법을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하기 위해서다”고 말했으며,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국민의 생명선인 농업농촌이 완전히 망한 다음 청렴사회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농업농촌 죽이는 김영란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농가의 아픔과 김영란법 개정 이재수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동영상 송출하고자 준비한 한우협회는 청와대 앞에서 해당 동영상을 송출할 수 없게 되자 인근 효자동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다. 재차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김홍길 회장과 민경천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을 비롯해 하태문 부회장, 박병열 부회장, 김충완 부회장, 박병남 충북도지회장, 문형재 경북도지회장, 강호경 경남도지회장, 윤주보 울산지회장, 송무찬 감사, 이연묵 이사, 이상혁 이사, 김문흠이사, 황세연 이사, 하봉조 이사, 한기웅 이사가 기자들에게 한우농가의 고충을 알리며,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간담회 및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피력한 김영란법 개정 관련 동영상을 송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내용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뉴스 및 김영록 농축산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김영란법 개정 관련 뉴스 편집본을 담겨져 있다.

특집 3 한민족과 한우 출판기념회

한우문화 집대성한 「한민족과 한우」 발간

농경문화, 우골탑 등 민족과 함께한 한우 재조명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한민족과 한우(저자 이희훈)」를 발간하고, 지난 8일 11시 마장동 태우그린푸드 4층 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민족과 한우」를 통해 우리 오천년 민족 역사와 생활에 배어 있는 다양한 한우 관련 문화를 발굴하여 우리 한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민족의 한우로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한우자조금의 지원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한우는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이자 토종가축으로 지정되어 우리 민족이 세계에 내어 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로서 한우의 역사, 문화, 풍속, 유적, 의료 등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한우의 문화를 정리해 한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자 이희훈씨가 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홍길회장이 발간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한우가 현재에 이르러 청탁금지법, 수입쇠고기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족이 어렵던 시절, 그 곁에 한우가 있었던 것처럼 한우 곁에는 항상 우리 국민의 성원이 있었다”면서 “이번 『한민족과 한우』 발간을 통해 우리 한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보고, 소비자에게 그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천사

한민족에게 한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흔살 한우와 팔순노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그린 영화 ‘워낭소리’를 보더라도 한우는 단순히 농사일을 거드는 수단이나 식량을 제공하는 가축 그 이상의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로 더 유명해진 시인 정지용의 시 ‘향수’도 그렇고 과거 문인들의 산수화 한 폭 어딘가에도 한우가 풍경처럼 서 있곤 했습니다.

이처럼 한우는 반만년 한겨레의 삶과 역사에 늘 함께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맛과 기능의 우수성은 세계 으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토종 유전자원이자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의 상징 중 하나인 한우를 이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가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점에서 한우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한우의 기원과 역사, 문헌, 인문, 풍속 등을 집대성한 ‘한민족과 한우’ 책자의 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책자 발간이 한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우의 가치를 드높이고 널리 알리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화 시대에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전국 10만 한우농가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책자 발간은 물론 평소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애써주고 계시는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대 국회도 ‘농축산인에게 힘이 되는 국회’, ‘농축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

특집 4 도별 한우산업 발전간담회

전국한우협회가 가야할 길 협회 정체성 확립과 역할 재확인

도별 순회 한우산업 발전간담회 개최

한우협회 중앙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1차 도별 순회 한우산업 발전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우산업 발전 방안과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의 주요 일정은 한우산업 지도자의 리더쉽(GMD 커뮤니케이션 김성우 박사)과 민족산업으로 가는길(한우협회 황엽 전무)의 특강을 시작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우리협회 김홍길 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도 지회장, 시군지부장, 사무국장,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간담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경남 - 7월 6일



현재 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이다.

경남도지회(지회장 강호경)는 지난 6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지회장 및 지부장, 사무국장, 실장 등이 모인 가운데 한우산업발전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 시군지부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며, 설계비가 과다 책정됨에 따라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해 3~5년 가량을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집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홍길 회장은 “설계비가 지역별로 9천원에서 2만원으로 다양해 지자체별로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 신고 등에 역풍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또한 특별 조치법 기간 연장 등은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후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집회 개최 등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별도로 건의된 내용으로는 정액 공급의 체계 개선 요청 및 협회 전용 도축장의 개설, 시식 행사 시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한우구입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 회장은 “정액 공급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용 도축장 개설 관련 “소요 자금이 2,000억~3,000억 가량의 필요함에 따라 재원마련 및 가동 시 운영 문제로 인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우선 출하예약제의 불합리한 점이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에 출하예약제 폐지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천 위원장은 “소비홍보의 예산 중 80% 이상을 한우고기 구매에 사용하도록 협의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 7월 11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전남간담회였다.

전남도지회(지회장 안규상)는 지난 7월 11일 영암축협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참석한 전남지역 시·군 지부장과 사무국장들은 한우고기 권역별 직거

래장터 개설, 명절에 북한동포 한우고기 보내기운동,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맛보고 또 사먹고 싶은 소비촉진행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육두수 조절과 한우농가들이 생산한 한우고기 소비촉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대비한 미경산우 비육의 필요성과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미경산우 사양관리프로그램 공유, 그리고 시·군지부 활성화와 협회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청탁 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제외된 가운데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은 다양한 정책 제안과 한우산업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나누며 당초 예정시간을 초과하는 열띤 간담회 자리가 됐다.

김홍길 회장은 한우 과잉 생산이 가격 폭락으로 변질 위험성을 미경산 암소 사육 확대에 대비하자는 건의에 동의했다. 당장 한우 가격이 높다고 생산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농가로 돌아오는 것을 겪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미경산 한우 사육농가 난소 제거비 지원, 사료비 지원이 나왔다. 이 밖에도 한우개량사업소로부터 한우 정액을 공급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김홍길 회장은 “토론회 또는 진상조사를 열고 전문가 조언도 들겠다”고 밝혀 참석한 한우농가의 공감을 얻었다.

충남 - 7월 18일



충남도지회(도지회장 최명식)는 지난달 17일 홍성 아이쿱자연드림에서 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지부장들은 기존 사업을 과감하게 탈피해 100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1개도에 1개소씩 연차적으로 한우종합타운(한우판매장, 한우박물관)을 조성해 저렴하게 판매하며, 한우박물관을 통해 한우를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군지부 활성화 방안 강구, 약품 일괄 공급사업, 회원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홍길 회장은 “자조금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필요한 분야에 정당하게 사용돼야 하는 자금이라는 점은 농가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시군지부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중앙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희상 당진시지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협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홍길 회장은 “지자체별, 농장별로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법화 길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 7월 20일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운섭)는 지난 20일 전주시 완산구 소재 ‘라루체’에서 전북 지역 한우농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우산업발전간담회를 진행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듯 이번 간담회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한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완주 지역의 한우농가는 “무허가축사 해결 때문에 지자체를 여러 번 찾아가도 모두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 적법화가 안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임실지역의 한우 농가는 “상당수 농가들의 축사를 뜯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법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홍길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타 생산자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하다”며 “최대한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안 되면 기간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지금을 일단 적법화를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농가들을 설득했다. 그러면서 김홍길 회장은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은 협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문제 해결과 함께 1순위 과제”라며 “중앙정부에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회장은 전농가 회원화와 관련해 “회원가입 동의서 7만장을 목표로 시군지부장의 많은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향후 실적이 좋은 지회 및 시군지부에 시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출하예약제와 관련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출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 직거래 유통망을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종모우 친자 확인 시 유전자 검사가 안맞는 경우가 많아 경매시장의 한우 무작위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김회장은 “종개협에 친자 확인 후 제대로 된 정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와 희망의 축산을 제시하다.

2017 국제축산박람회, 9월 21일부터 24일 대구에서 개최

■ KISTOCK 추진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한국국제축산박람회(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가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대구(EXCO)에서 열 번째 서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미래 잇는 친환경 축산, 희망 잇는 상생 축산’이라는 주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겠다는 축산업계의 의지를 다지고, 축산업 미래 비전의 기반으로 대한민국 축산업계의 기술력을 해외로 알리기 위해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축산’이라는 공통의 주제 아래 축산농가와 업계 종사자 모두의 자긍심이 모여 튼튼한 축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신뢰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번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 6개 단체(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열띤 부스 유치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전세계 농업·축산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 유수의 축산 관련 업체와 대한민국의 축산 농가가 보다 폭넓은 교류가 이뤄지는 장입니다.

박람회 구상 당시 800개 부스를 예상했으나 업체들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825개 부스가 유치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최신 사양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행사장은 EXCO 실내 전시장을 비롯해 야외 4차선 도로와 건너편 시민광장까지 홍보부스 및 체험존 등이 구성됩니다. 전시품목은 축사 환경 조성 및 축사설비·사료·동물약품·R&D 등이며, 해외부스 및 옥외 시연부스는 각 50여개 부스로 구성됩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으로의 긍정적인 이미지의 대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전시장이 운영됩니다. 또한 산지생태축산 표준모델 등을 전시하여 친환경 동물복지형 가축 사육시설 등을 소개할 방침입니다.

○ 무허가 세미나와 학술의 장 펼쳐지다

당장 내년도 3월에 다가오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많은 농가들이 힘들어 합니다. 이에 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고자 무허가축사 관련 각종 해외 사례 및 일본, 유럽 등 해외 우수 연사를 초청하며, 국내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농가의 관심사항을 선정하여 학술행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가금류 관련 SI 교육 세미나, 비육·양돈기술·양계 등 농가 대상 세미나(6개 업체 9종),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한우협회 바이어대회 등 다양한 정보 및 기술교류의 장이 펼쳐집니다.

○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산물 홍보행사를 통해 축산업의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알려 축산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 박람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국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판매를 진행하는 한편 바로 구워 드실 수 있는 즉석 숯불구이장도 구성되어 기분 좋게 보고, 먹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

창립 18주년 기념식이 9월 23일(토) 오후 2시, 엑스코 신관 회의실 325호에서 개최합니다. 창립기념식은 한우지도자, 내·외빈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산업이 민족산업임을 다시 상기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날 한우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회원과 지부, 공무원 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한우농가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한우나눔을 진행합니다.

이번 2017 한국국제 축산박람회는 명실 공히 국제 전시회로써 도약을 위해 한국 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국제 전시회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축산박람회가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인과 함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축산인과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대한민국과 전 세계 축산인 모두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우, 홍콩인들의 입맛 사로잡을 현지 마케팅 강화!

2017년 홍콩 푸드 엑스포 참가, 한우 공동 홍보관 운영



홍콩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한우의 현지 수출 지원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우 대표 생산자 단체인 우리협회와 한우자조금은 지난 8월17일부터 19일까지 홍콩 완차이지구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홍콩 최대 식품 박람회, 2017년 홍콩 푸드 엑스포에 참가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우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홍콩 푸드 엑스포는 세계 25개국 1,000여개 업체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식품 박람회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엑스포에서 국내 수출업체 및 현지 협력업체와 연계한 한우 공동 홍보관 운영을 통해 현지 식품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한우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 및 품질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아울러 한우



2017년 홍콩 푸드 엑스포 참관을 위해 홍콩을 방문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이 홍콩 시내 대형 마트를 찾아 한우 유통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7년 홍콩 푸드 엑스포 한우 공동 홍보관에서 국내 한우 수출업체 및 현지 수입업체가 엑스포를 찾은 유통 바이어들과 한우 유통에 대한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요리 전시 및 한우 시식회, 경품 이벤트 진행을 통해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부각하고, 한우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현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도 늘어 나간다. 이를 위해 홍콩 현지 공식 SNS 채널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문 및 영문 서비스를 개시해 홍콩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류 대표 먹거리 한우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흥미와 혜택 위주의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2015년 홍콩 첫 수출 후 우리 한우는 지난 2년 간 홍콩인들에게 한우 특유의 뛰어난 맛과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수출량을 늘어 왔다”며 “10월 홍콩에서 진행되는 한국문화의 달 연계 현지 소비자 대상의 홍보 이벤트와 한식 외식업체 및 현지 수출기업들과의 공동 마케팅, 여기에 현지 바이어 대상의 국내 한우 농장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세계 최고의 맛, 한우의 이미지를 굳건히 심어나가는 것은 물론 홍콩을 넘어 더 많은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우는 2015년 홍콩 첫 수출 이후 지난해에만 45.7톤의 수출 성과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9.7톤의 수출로 지난해 대비, 1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우 암소 개량의 척도를 제시하다

전북도지회,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운섭)는 지난 18일, 한우 암소 개량과 등급제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전북대학교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홍길 회장은 “그간 수소에게 집중된 개량을 암소에도 도입해야만 효과가 클 것이다. 전북에서 추진하는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이 우수 정책 사례로 자리잡아 한우산업에 많은 발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북지역 한우농가 160여 명과 한우협회 김홍길회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심포지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

제 1주제 : 고품질 쇠고기 생산을 위한 마블링의 산업적 고찰

일본 오비히로대학교수 구찌다 케이고



기존의 등급 판정법으로는 마블링의 섬세함이 아닌 비중(함량)을 심사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라도 마블링의 섬세함은 차이가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능시험을 진행한 결과 맛의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마블링의 섬세함을 관측하기 위해 ‘신 섬세함 지수(NFI, Fineness Index)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mirror type 카메라는 90년대부터 사용해 현재는 소형화 되어 빠른 속도로 쇠고기의 단면적을 분석해 등급 판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육자가 직접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주제 : 전라북도 한우개량 정책방향

전북도청 친환경축산팀장 임정수



전북의 핵심과제는 삼락농정으로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기조로하여, 농업, 농민, 농촌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단위 한우개량 정책으로는 한우능력검정, 한우육종농가, 암소검정 사업단, 암소개량센터,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북의 한우개량 정책은 표와 같다.

● 전라북도 한우개량 정책

정책명	목적	지원내용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도내 한우암소 유전평가 및 선발관리를 통해 암소축군 조성	고능력 암소 선발을 위한 DNA 검사비, 시료채취 비용, 송아지 장려금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암소 유전형질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암소 기반구축 및 우수한 경제형질 육성	등록비, 선형심사비, 정액지원
종축 및 수정란 생산	계획교배를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과 혈통보유 한우수정란 생산·농가 공급	한우수정란 생산 및 농가공급
재래가축(침소) 생명자원 보존	멸종 위험 재래가축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유전 자원 확보, 침소 사육기반 조성으로 도내 축산 농가 신 소득원 창출	침소 씨수별 정액채취 및 동결보존, 도내 침소 사육농가 정액 무상공급
축산기술 전문교육	축산전문기술 교육을 통한 가축개량 및 번식 기술력 제고, 축산 현장기술농가 보급으로 양 축농가 경영역량 강화	4개반 교육과정 운영
축산기술 개발연구	가축질병, 축산물위생 및 우량종축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조사, 연구로 업무기술 개발 및 양축농가 지도 활용	6과제 선정

종합토론

전북 광역 한우 암소 종합 개량 사업

전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교수 이학교



그동안의 한우 개량은 수소를 중심으로 많은 개량이 이뤄졌지만 지역단위 암소 개량사업간 보완 체계가 필요하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는 전북도에서 최초로 혈통관리 기반 사업(J카우)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단위 암소 유전능력 확인을 위한 체계가 미비하며, 혈통자료 누락 개체가 많으며, 일반농가의 친자부정율이 매우 높아 개량 사업 추진에 문제가 크다. 전북은 타 지역 대비 암소 사육두수가 매우 높으며, 암소에 대한 개량의지가 강해 송아지 유전능력 평가를 통한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최근 미경산한우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형질이 떨어지는 개체를 도태시키는 개량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30~35%의 유전능력평가 신뢰도를 60% 이상으로 향상시켜 실제로 농가 단계에서 우수 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전라북도 한우산업의 경쟁력

삼락농정 축산분과장 박승술



한우정보화사업은 암소의 모든 정보를 축적해가는 시스템이다. 전북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J카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강도를 높이는 것에 재원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J카우의 대한 신뢰도를 높여 현물시장에서 가격 차별화가 이뤄진다면, 농가들의 J카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우수 암소 선발상버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생산비 절감이 한우사업의 절대적인 숙명이라면 암소의 선발과 도태를 통한 개량은 가장 저비용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우수한 암소집단의 형성은 장기적으로 전북한우 산업의 무한한 경쟁력을 만들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고품질 소고기 생산과 한우개량

이반농장 대표 이근수



정부와 일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도축연령단축, 마블링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소비자들의 요구대로 진행된다면 수입육과 차별화문제/소비감소로 인한 한우산업의 위축/비용의 추가투입으로 인한 농가들의 소득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모여 입장차이를 공유하고,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우개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액 공급체계의 변경, 개량에 힘쓰는 번식농들의 소득 보장안 마련, 개량 전문기관인 종축개량협회의 역할 제고 등과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의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 한우개량 정책에 대한 요청사항으로는 실무 역할을 지역 축협에서 하고 있으나 좀 더 확대해 협회, 개량 전문가, 개량 우수농가들이 포함된 가칭 개량 협의회, 지역 개량 운영회를 조직하여 협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기고 | 한우산업 생산·유통 진단

한우가격, 맛 본 소비자들은 지불의사 충분하다.

■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김재민 실장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 2012~2013년 50%에 육박했던 국내산 쇠고기 자급률은 2014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는 30%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다면 쇠고기 자급률 하락이 우리 한우산업에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통계 숫자만 놓고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현재 소비자들이 우리 한우고기 보다 수입 쇠고기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하이마블링을 추구하는 우리 한우 맛이 수입 쇠고기의 맛과 견주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상황에 그치지 않고 관세율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숫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자급률이라는 통계에 숨겨진 메시지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한우업계가 사용할 전략이 바뀌고 그에 따라 쇠고기 공급체계가 바뀔 수도 있다.

쇠고기 수급통계에 숨겨진 메시지를 유추해 보고 그에 따른 한우산업이 취해야할 전략에 대해 이야기 한다.

1. 쇠고기 자급률의 변화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은 2004년 이후 40%대를 유지해 왔다. <표1>2013년 50.1%를 찍은 이후 자급률은 급속히 낮아져 2016년 37.7%까지 낮아졌고 앞으로 30% 중후반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여러 연구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자급률의 변화는 우리 국내산 쇠고기(한우)의 공급 감소와 수입쇠고기 공급 증가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변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높은 한우가격을 원인으로 들면서 한우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쇠고기를 찾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표 1. 쇠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2010	2013	2016	전망		
				2017	2021	2026
생 산	186	260	219	227	229	253
수 입	245	257	362	364	397	435
1인당 소비량(kg)	8.8	10.3	11.5	11.6	12.2	13.2
자급률(%)	43.2	50.1	37.7	38.4	36.6	36.7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2017농업전망), 농림부(농림축산분야 주요통계 2016)

수입축산물의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증가는 확실한 사실이지만 한우의 높은 가격에서 기인했다는 해석은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쇠고기의 자급률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총 생산된 쇠고기 중량에 같은 해 총 공급된 쇠고기(생산+수입) 중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 공식은 분모의 크기가 커지면 자급률은 하락하고 분자의 크기가 작아져도 자급률은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내 쇠고기 산업에서는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져 자급률 하락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이다.

한우가 비싸서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명제는 어떻게 반박 가능할까?

2. 자급률과 쇠고기 가격의 상관관계

국내산 쇠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자급률이 하락했다면 반대로 쇠고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자급률이 높다는 명제도 성립해야 한다.

<표2>의 국내 쇠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50.1%를 찍은 2013년 한우 두당 평균 가격은 524만5760원으로 2010년대 들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3년보다 자급률이 더 높았던 2009년(50.5%)의 두당 쇠고기 가격은 646만6386원으로 119만원이나 비싸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비싸면 자급률이 하락한다는 가설은 들어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급률이 36.3%였던 2003년의 한우두당 가격은 521만9105원이었는데 마찬

표 2. 국내 쇠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연도	공급두수	한우 두당 평균가격	쇠고기 수입량	자급률
2003	361,935	5,219,105	195,977	36.3
2004	324,442	4,771,998	118,575	44.2
2005	391,302	5,368,505	122,401	48.1
2006	425,468	5,498,443	154,984	47.9
2007	493,879	5,615,952	178,850	46.4
2008	589,282	5,457,986	158,160	47.6
2009	643,543	6,466,386	243,969	50.5
2010	602,016	6,498,577	291,433	43.2
2011	718,256	5,423,462	343,864	42.8
2012	842,771	5,431,921	298,642	48.2
2013	959,751	5,245,760	300,488	50.1
2014	920,944	5,889,675	314,820	48.1
2015	883,593	6,736,320	330,975	46.0
2016	737,476	7,526,904	402,924	37.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도축검사보고, 통계청 생산비조사

주1) 한우 두당 평균가격은 축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연도별 평균 도체중에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평균 경락가격에 대비해 산출함.

가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30% 중반대를 나타내고 있으니 가격이 높으면 자급률이 하락한다는 명제는 들어맞지 않는다.

국내 한우가격에 대한 수입업자의 반응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니 당해 기준년도의 한우 가격이 높으면 다음해 수입쇠고기의 수입이 늘어나 자급률을 하락시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개연성도 <표2>의 2003년~2016년까지의 한우가격과 다음해 쇠고기 수입량을 비교하면 들어맞지 않는다. 쇠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한우 고기의 공급도 조정기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증가하면서 수입쇠고기도 계속해서 그 양이 증가해왔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된다. 실제로 2003년을 기준 연도로 볼 때 한우를 포함한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량과 수입쇠고기의 공급량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급률 허구성의 진실

2015년과 2016년 한우두당평균가격의 차이는 79만584원이다. 한 마리당 가격이 8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그 사이 한우자급률은 46%에서 37.7%로 8.3% 하락했다. 한우고기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면 한우의 자급률 하락과 함께 가격도 함께 하락해야만 한다. 하지만 수입쇠고기의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쇠고기 공급은 늘고 자급률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고기의 가격은 더욱 상승했다. 이는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공고하다는 증거다. 한우의 2016년도 공급량은 2015년도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수급이 안정적이었다는 2010년보다 공급량은 13만두 이상 많았고 가격도 110만원 정도 높았다.

공급증가로 한우가격이 2010년도보다 100만원 정도 하락했던 2011년보다 2016도의 공급량은 2만두 정도 많았다. 71만두가 공급됐던 2011년도의 한우가격이 542만원이었는데 73만두가 공급된 2016년 가격이 752만원으로 210만원이나 더 높게 형성됐는데 이는 2011년보다 2016년 우리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는 더 높아졌으며, 저변은 더 확대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3>과 같은 조건에서의 2016년 가격 상승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2011~2014년 한우공급 증가에 따른 한우가격 하락이 한우고기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당시 한우의 맛을 본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불 의사, 구매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한우고기 공급두수와 가격 변화

	2011	2016
공급두수	71만두	73만두
두당 평균 가격	542만원	752만원
자급률(%)	42.8	37.7

주)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기 마련이나 쇠고기 공급량이 2만두 더 많은 2016년 쇠고기 가격이 높다는 것은 한우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됐다는 것을 말해 준다.

4. 관세율과 자급률의 상관관계

한우자급률 하락 원인이 한우의 매력감소, 수요 감소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으니 이제는 자급률이 어떤 이유에서 하락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우고기 자급률 하락의 주된 이유는 2012~2014년 실시한 수급조절 프로그램의 영향이 크다. 한우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실시한 정부가 추진한 암소도태 프로그램이 2015년과 2016년 쇠고기 공급 감소의 주된 원인이며 소의 임신기간과 주기 그리고 비육

우의 평균 비육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공급 감소는 2018년까지 영향을 주고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쇠고기 자급률의 하락은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크기를 작게 하는 국내산 공급 감소와 분자의 크기를 크게 한 쇠고기 수입증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쇠고기 수입증가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율 하락과 국내산 쇠고기 가격 상승 다르게 표현하면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 감소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쇠고기 수입단가를 크게 낮추는 원인이 되며, 후자의 경우 국내에서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자들이 수입쇠고기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량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수입쇠고기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인 수입쇠고기는 계속 낮아지는 관세율 하락에 영향을 받아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표4>의 국가별 쇠고기 관세율을 보면 2017년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기준년도 40%의 관세율에서 25%로 15%나 감소했다. 호주와 캐나다 등 다른 수출국의 관세도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도 쇠고기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국가별 수입 쇠고기 관세율 추이

국가	관세율 40%	2017년	2020년	무관세
미국	2011년	25	17.5	2027년
호주	2013년	29.3	21.3	2028년
캐나다	2014년	32	24	2029년
뉴질랜드	2014년	32	24	2029년

자료 : 농장에서식탁까지 2017년 2월호

표 5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변화 추이

연도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기타	계
2010	90,569	121,790	0	30,947	1,780	0	245,086
2014	104,953	150,882	2,739	20,964	118	856	280,512
2015	112,431	164,063	800	18,169	247	1,555	297,265
2016	153,181	177,530	5,556	20,294	1,355	3,615	361,531
2017년 1분기	52,828	47,197	1,605	6,751	289	1,252	109,922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주)검역기준

그 동안 광우병 이슈로 인해 호주산에 비해 수입량이 많지 않았던 미국산 쇠고기는 2017년 관세율 인하에 힘입어 호주산 보다 국내로 더 많이 반입되었다. 관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5. 한우산업, FTA를 준비해야 한다

40%에 달하던 쇠고기 관세율이 20%대로 진입하며 국내 쇠고기 시장은 수입쇠고기의 판매증가가 두드러져 보이고 있다. 때마침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 감소가 겹치며 수입쇠고기의 약진에 한우농가들은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자급률 변화에 민감한 기사를 쏟아 내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면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생각해 보자.

한미 FTA가 타결됐던 시점에서 정부는 수입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는 만큼 국내산 쇠고기도 생산비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생산비 절감 아이디어를 모아 농가들에게 전파하려 했다. 실제로 이때 정부나 한우 업계 종사자들이 생각한 시나리오의 지금까지 들어오던 쇠고기의 스펙에 가격이 40% 가까이 낮아지는 것을 가정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였다.

실제 시장에서는 관세 인하 효과가 어떤식으로 나타났을까?

본 연구소에서 2017년 1월 개최한 한우산업 좌담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마트 신선식품부문 민영선 상무는 지난해부터 수입육 판매대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관세가 인하되면서 과거에는 들여오지 못했던 다양한 스펙의 고품질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고 그 때문에 취급하는 상품의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수입육 판매대가 확대됐다는 것이었다.¹⁾

2017년 6월 개최한 양돈산업 좌담회에서 이마트 문주석 돈육바이어는 2016년까지는 이마트가 신선식품을 취급한 이래 돼지고기가 매출액 1위를 놓친 적이 없으나 올해는 국내산 돈육이 2위로 내려가고 수입육이 1위로 올라서게 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분기까지 수입육(쇠고기, 돼지고기)의 매출액이 국내산 돈육을 앞질렀다는 사실도 확인시켜줬다.²⁾

이는 한미 FTA가 타결됐던 시점에 정부가 대응책으로 제시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시장개방의 파고를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다양한 스펙의 수입육류라는 것은 과거에는 가격 때문에 들여오지 못했던 냉장육이나 등급이 높은 쇠고기, 차별화된 사육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력을 가지고 있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육류

1) 협동조합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농장에서 식탁까지 2017년 2월호)

2) 농장에서 식탁까지 2017년 7월호

가 국내로 반입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스페인의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국내에서 고가에 판매가 시작된 이유도 관세 인하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동물복지를 적용한 쇠고기, 목초위주로 사육한 쇠고기, 유기사육을 적용한 쇠고기 등등 다양한 이력, 다양한 스토리로 무장한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표 6 쇠고기 수입현황

단위 : 톤

연도	냉동	냉장	합계
2005	123,086	19,505	142,591
2010	203,006	42,080	245,086
2015	245,952	51,313	297,265
2016	301,219	60,312	361,531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주) 검역기준

<표6>와 같이 냉장 육류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가설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다만 지금은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체 쇠고기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는 전망할 수가 없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농업대전망에서 국내산 자급률이 하락하기는 하지만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량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내 놓은바 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의 소비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국내산의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인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저가의 냉동쇠고기 위주가 아닌 다양한 스펙의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되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만큼 일부 소비자의 이탈을 예상해 볼 수 있다.

6. 한우산업, 다양한 시도가 경쟁력이다.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 하락은 한우에 대한 수요 감소가 아닌 일시적인 공급 감소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관세 하락 그로 인한 쇠고기 수입 증가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특히 앞에서 논증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급률이 하락했다는 명제는 허구라는 것이 나 타났고 우리 한우의 저변은 6년 전 보다 더 확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이다. 지금은 그간 한우업체의 노력과 2011~2014년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한우고기의 저변이 확대 됐지만, 높은 한우가격이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이어지고 있고, 그에 비해 수입쇠고기의 관세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응방법이다. 단순히 한우고기의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이 쉽지 않고, 또 품질을 높이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앞에서 논증한대로 수입쇠고기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품질도 높아지고 상품의 가짓수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한우는 맛 특히 구이용도로써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상품의 품질을 강화해 왔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격에 대응한 표준적인 쇠고기부터 맛에 대응한 높은 등급의 쇠고기, 다양한 이력과 스토리가 있는 쇠고기로 분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우브랜드 경영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브랜드경영체를 책임지는 지도자들과 소속농가들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차별화 전략이 계속 유효할지를 점검하고, 브랜드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맛과 사육환경 등 수입육의 다양성에 대응할 각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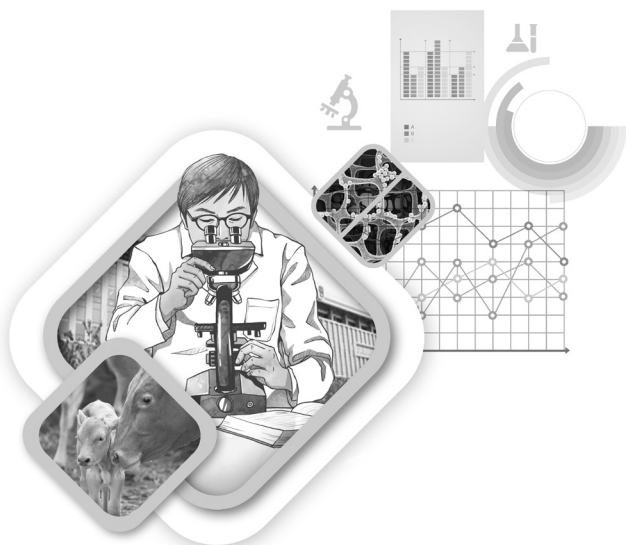
그렇다고 이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 브랜드사업 초창기 정부는 이른바 삼통(종자, 사료, 사양관리 통일)을 강조하며 대형화 표준화 방법을 전수했는데, 다양성에 기초한 브랜드차별화 전략은 정부가 이를 지도할 경우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각 경영체들이 소속농가들과 협의해 사육중인 암소들의 유전능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지역에 활용 가능하거나 결합 가능한 유무형의 자산들을 찾아내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유전능력이 뛰어난 암소를 많이 확보한 지역은 일본의 화우수준의 최고 마블링의 쇠고기를 특화하거나, 방목 등이 가능한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한우사육을 강조하거나, 조사료 확보가 용이한 지역은 소의 생리에 맞는 사료급여체계를 마련해 이를 차별화 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의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 트렌드 변화로 기존 근내지방 위주에서 저지방이면서도 고급육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도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소도체 등급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도체 등급제도는 1992년 7월 등급기준이 제정된 이래 1997년 12월 근내지방도 6, 7번이 신설되어 육질 1+등급이 신설되었고, 2004년 12월 근내지방도 8, 9번이 신설되면서 육질 1++등급이 생겼으며 출하체중 증가를 반영하여 육량지수를 하향조정했다. 그리고 2011년 10월 불가식 지방량을 줄이고 육생산량을 높여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육량C의 지수를 바꾸는 등 3번에 걸쳐 보완되었다.

이는 한우가 개량되면서 점차 육량과 육질이 개선된 결과와 함께 출하체중과 사육기간을 늘려 높은 등급의 소를 출하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지방의 생산을 억제하여 사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각계의 고민이 적용된 것이었다. 이번엔 보완될 제도의 방향은 육량지수 산식을 성별, 품종별로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여 예측정육량 정보를 제공하고, 정육량 예측치를 도체중량으로 나누어 정육율 예측치를 산출하는 방안을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육질등급은 근내지방을 무조건 높이는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최종 육질등급 결정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근내지방도의 비중은 낮추고 다른 항목 품질평가요소(육색, 지방색,



한우 거세우 근내지방을 높이기 위한 방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강선식 농학박사

성숙도, 조직감 등)의 비중을 높여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한다. 현행의 근내지방도에 따른 예비등급을 부여 후 다른 항목의 결격항목에 따라 최종등급을 부여하였으나, 보완(안)은 각 항목별 등급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최종등급으로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과도한 근내지방량으로 소비자가 우려하는 과도한 지방섭취와 수입에 의존하는 농후사료의 낭비를 줄이고자 근내지방 섬세도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방향의 요지는 근내지방도가 4인 1등급 이상의 고급육에서 극단적으로 굵고 과도한 근내지방은 육질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섬세한 마블링은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전체적인 지방함량은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당초 2018년 실시예정이었으나,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한우관련 단체의 요청으로 2021년 적용 예정이다.

〈그림1〉 근내지방 섬세도에 따른 등급 조정

육질 등급	근내 지방도	근내지방 섬세함			비고	
		섬세	보통	멍침		
1++	9	1 ⁺⁺	1 ⁺⁺	1 ⁺		
	8	1 ⁺⁺	1 ⁺⁺	1 ⁺		
1+	7	1 ⁺⁺	1 ⁺	1		
	6	1 ⁺⁺	1 ⁺	1		
1	5	1 ⁺	1	1		
	4	1 ⁺	1	1		

※ 2, 3등급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특히 등심의 근내지방에 대한 섬세지수를 멍침지수로 나누는 F/C지수는 섬세함의 정도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016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69의 범위를 보이는데 상위 5%는 45~69, 중위는 8~45, 하위 5%는 4~8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이중 하위 5%는 근내지방도가 7인 1+등급일 경우 1단계를 하락시켜 최종등급은 1등급으로 판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록 전체 등급판정우의 5%만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의 적용을 받는 농가의 입장에선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점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이런 취지는 구이형태로 즐기는 한우고급육의 소비특성으로 볼 때, 과다한 지방섭취라는 소비자의 가장 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도 섬세한 근내지방이 많을수록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등심의 섬세한 근내지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도 2016년부터 일부 브랜드의 도축우에 대한 근내지방 섬세도를 꾸준히 측정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원고는 한우사육 농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근내지방의 섬세도를 높이기 위한 사양방법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은 거세시기이다. 고급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 거세시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2, 4, 6, 8, 12 및 16개월령에 거세하여 시험한 결과, 28개월령 이상 장기비육 할 경우, 8개월령 이후 성성숙기 거세가 반드시 성장을 촉진시키지는 않았으며, 사료효율이나 육질적인 측면에서 불리하였고, 가축의 보정과 시술의 어려움은 물론, 회복이 더디므로 가축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4~6개월령 육성기 거세는 증체, 사료효율 및 소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육질이 우수하고 육색 또한 뛰어나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높아지며, 가장 우수한 맛과 상품성을 제공하였다.

〈표1〉 거세시기에 따른 성장 및 육질 개선효과(축산원, 2004)

구 분	거세시기(개월령.)					
	2	4	6	8	12	16
○공시두수	8	8	8	10	10	10
○개시시 체중	80.6	114.6	173.4	174.7	171.5	176.8
○종료시체중(28개월령)	652.0	631.0	662.3	622.0	618.2	602.2
○일당증체량(kg/일)	0.73	0.71	0.74	0.69	0.69	0.68
○근내지방도	3.91	6.12	4.83	3.93	4.26	3.93
○육색	4.8	4.6	4.6	5.1	5.0	5.0
○육질등급(1+:1:2:3, 두)	0:5:2:1	5:3:0:0	1:6:1:0	0:6:4:0	1:4:5:0	2:2:5:1
○전단력(kg/cm ²)	4.55	3.34	3.90	5.79	4.98	4.71
○보수력(%)	23.05	23.84	23.55	20.73	19.36	22.73
○순수입	3,552	3,917	4,036	3,402	3,346	2,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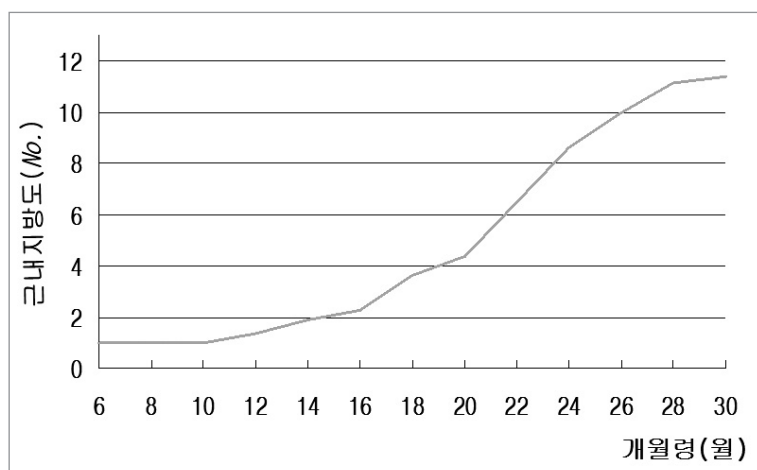
그러므로 거세를 6개월령 이전, 가능하면 4개월령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는 보다 크고 통통하게 살찌고 피모에 윤기가 흐르는 송아지를 선호하여 이력제 신고를 미루어 제 나이가 아니거나, 과도하게 비육시켜 오히려 구입 후 다이어트를 시킨 후에 본격적인 비육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시간을 낭비하는 오류가 범해 질수 있어 송아지 구입농가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현상은 각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송아지를 생산하여 이를 비육하는 일관사육 농가는 조기거세를 실천 할 수 있으나, 7개월령 이후에 거래되는 송아지는 섬세한 지방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송아지는 8개월령 이후부터 정소가 발달하면서 옹성호르몬이 나오는 성성숙기가 시작되는데, 거세를 초기에 할수록 옹성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고 근섬유가 가늘어 나중에 근내지방이 침착할 때, 보다 섬세하게 근내지방이 형성되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농후사료의 과다한 급여가 뭉친 근내지방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육생리의 측면에서 볼 때, 근내지방은 12개월에서 서서히 침착되기 시작하여 비육중기인 16개월령부터 28개월령까지 직선형태로 급격하게 상승한다(그림2). 이 결과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1994~1997년 까지 한우 송아지 208두를 공시하여 매 2개월 간격으로 도축하여 나온 성적으로 매우 귀한 자료이다.

〈그림2〉 비육기간에 따른 근내지방도의 변화



비육중기는 소의 일생동안 사료섭취량이 가장 많은 기간으로 육성기 사양관리가 잘 된 소라면 농후사료를 일일 14kg 이상의 섭취가 가능하지만, 이 양은 매우 많아 복강과 피하지방이 과도하게 생성되므로 체중의 1.8% 정도로 급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안 키우면 언제 키우냐’는 심정으로 과다하게 급여한다면 불가식 지방과 함께 근내지방 조직으로 영양소가 동원되어 뭉친 근내지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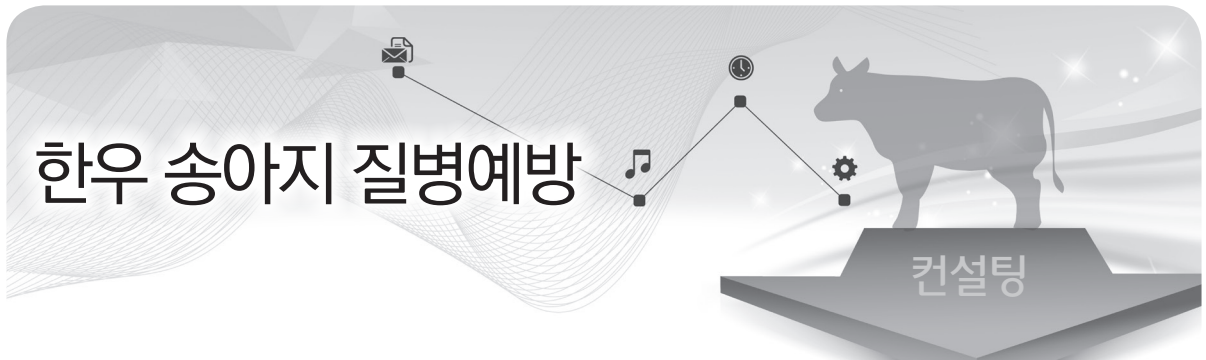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육후기 사료 급여량을 10kg정도를 급여하고 있는데, 요즘 출시되는 사료의 소화효율이 개선되어 이를 그대로 실천하면 육량C등급이 많이 나오게 되며, 9kg이나 그 이하로 조절하여 급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농후사료의 적절한 제한급여와 지속적인 실천이다. 소가 사료를 먹게 되면 영양소는 뇌, 뼈, 근육, 태아의 순으로 이용되며 여기에서 남는 영양소가 지방에 축적되는데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신장을 둘러싼 신지방>내장지방>피하지방>근간지방>근내지방의 순으로 생기며 우리가 원하는 근내지방은 제일 마지막에 생긴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피하지방, 즉 등지방이 두꺼울수록 근내지방이 잘 생성될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경우 등지방이 두꺼울수록 근내지방이 적게 침착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2016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근내지방 섬세도를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섬세도 상위 10%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도체특성에서 섬세도 하위농가의 도체중, 등지방 두께,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지방면적과 지방함량이 높았으며, 상위농가 출하축의 근내지방 입자수, 섬세지수 만이 높게 나왔다. 그러므로 육성기부터 철저한 사양관리를 실천하여 과도한 영양소의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육량과 도체중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농후사료를 급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사료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섬세한 근내지방을 갖는 소고기 생산을 위해 기존의 사양관리보다 더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농가의 부담이 한층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한우고기의 소비를 주도하는 소비자의 의식과 취향에 맞춰나가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방안이 2~3년 안에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고 있다.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 소장/수의학박사 류일선

국내 한우 사육농가에서 가장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신생 송아지에서 다발하는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이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자들의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보고가 있어 왔으나 딱히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국내외 송아지 질병예방을 위한 최근 연구결과 등을 정리하여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출생직후의 관리

요점

- 반추동물로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 질이 좋은 초유를 충분히 먹여 면역력을 높인다.
- 대용유와 인공유를 적절하게 급여한다.
- 인공유의 섭취부족은 제 1위의 발육 및 발달에 큰 저해요인이다.

가. 출생시의 관리

태어난 송아지가 호흡을 하지 않을 때에는 비강을 손가락이나 붓짚 같은 것으로 자극하거나 냉수를 끼얹는 방법으로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아서 건조시키나, 만약 어미소가 핥아주지 않으면 깨끗한 타월이나 붓짚 등으로 수분이나 점막을 닦아주어야 하나, 입과 코안만을 닦아 준 후에 어미소가 핥아주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다.



나. 건강 관찰

갯 태어나 젖은 송아지는 체중을 측정함과 동시에 건강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생후 30분정도에서 기립 또는 보행하는 지, 초유를 잘 빠는 지, 바이러스성 기형(두부, 경부, 천연공 등을 중심으로 전신)이 없는가 등이다.

난산이 송아지의 발육성장에 미치는 영향

송아지의 폐사율은 난산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증가하는 데, 난산으로 태어난 송아지 658두중 164두가 48시간 이내에 폐사한 보고가 있으며, 난산의 경우에는 송아지는 산소결핍상태에 빠져 생명력이나 활력이 저하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추동물로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표 1. 초산우의 난산정도가 송아지의 폐사에 미치는 영향(McDniel, 1981)

난산 지수*	두수	폐사 두수(48시간 이내)	폐사율
1	537	44	8.2
2	358	36	10.1
3	169	59	34.9
4	87	48	55.2
5	44	21	47.7
소계	1,195	208	17.4

* 1=보조없음, 2=가벼운 견인, 3=강한 견인, 4=난산보조기 이용, 5=수의사 도움

2. 초유와 송아지의 면역체계

가. 초유

갯 태어나 젖은 송아지는 면역글로부린의 태반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신생 송아지는 초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초유중의 면역글로부린이 장으로부터 흡수되어 처음으로 항체를 획득하여 질병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게 된다(수동면역체계).

신생 송아지의 건강과 생존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품질의 초유를 출생 후 가능한 조기에 적절한 양을 급여하는 것이다. 초유는 어미소가 분만

후 처음으로 분비하는 우유로 특이적으로 면역글로부린(γ -글로부린)이 풍부하여 송아지에 면역방어기능을 부여한다. 또한 초유는 영양분도 풍부하므로 신생 송아지의 최초의 영양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나. 소와 사람의 태반 구조상의 차이점

소와 사람에서는 태반의 구조가 크게 다른 데, 영장류(사람, 원숭이 등)은 혈용모막성태반으로 결합직이 없어 어미의 면역물질이 태아에 쉽게 이행하나, 소 등의 반추동물은 결합직용모막성태반으로 결합직의 벽이 두꺼워 면역물질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세균도 통과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태반의 구조 차이로부터 신생 송아지는 면역물질이 일체 이행되지 않는 “면역 전무(=제로)”의 무방비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송아지에 면역글로부린이 풍부하게 함유된 초유를 조기에 급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람은 태반을 통해서 면역글로부린을 이행하나, 소에서는 초유를 통해서 이행되기 때문이다.

표 1. 동물의 종류에 따른 항체이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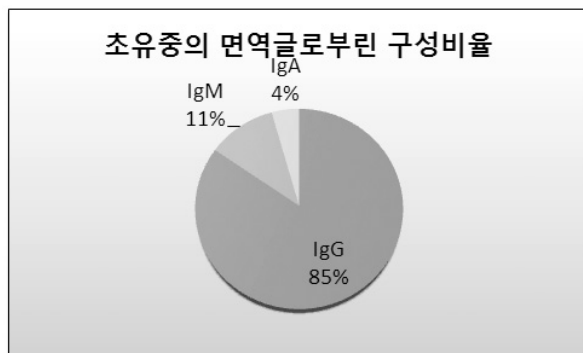
동물의 종류	태반구조	태아기의 항체이행	출생 후의 초유중의 항체		
			양	경로	기간
사람, 원숭이	혈용모막	+++	±	장	-
소, 면양, 산양	결합직용모막	-	+++	장	24시간
돼지, 말	상피용모막	-	+++	장	24~36시간
개, 고양이	내피용모막	+	++	장	24~48시간

다. 송아지의 면역체계

송아지의 면역기능은 출생시에는 발달하지 않아서 감염과 대항하는 충분한 량의 면역글로부린을 없어 초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초유에 함유된 면역글로부린이 송아지의 장으로부터 흡수 및 이행하는 것으로 면역능(항체)를 획득하게 된다(수동면역). 이러한 초유로부터 얻어진 항체가 송아지 자신의 면역체계가 기능을 할 때까지 송아지를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다.

초유중의 면역글로부린에는 크게 나누어 IgG, IgM 및 IgA의 3종류가 있고, 그

중 약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IgG로, 가장 중요한 면역글로부린이다. 갓 태어난 신생 송아지의 소장은 생후부터 24~36시간사이에는 면역글로부린이나 다른 단백질과 같은 큰 분자로 있어도 그대로 흡



수할 수 있으나, 소장세포를 통해서 큰 분자를 흡수해서 혈액중에 방출하는 능력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감소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장의 폐색이 일어날 때까지 송아지의 수동면역에 필요한 충분한 량의 면역글로부린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초유를 급여하지 않은 송아지에 대해서 대장균의 감염시험을 한 보고에서는 빠르게 소장상피로부터 흡수된다는 보고도 있다. 이 때문에 병원균(대장균 등)이 감염되기 전에 초유를 급여하는 것이 기본으로 생후 5~6시간이내를 목표로 하는 이유이다.

라. 송아지의 장 구조

분만 후 24시간 이내(빠를수록 좋음)의 송아지 장관막은 면역글로부린을 효율적으로 흡수한다(24~36시간 사이에 완전 소실). 이 시기의 송아지의 장간막은 넓은 간격을 가지고 있어 통상적으로 면역글로부린 등의 분자량이 큰 물질은 통과할 수가 없으나, 이 시기에 한해서 쉽게 통과가 가능해 조기에 초유를 먹이는 중요하나, 세균이나 병원체도 쉽게 침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깨끗한 초유를 먼저 급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분만 후의 경과시간과 면역력의 관계

송아지가 초유를 매개로 어미소로부터 면역을 획득하는 데는 송아지측과 어미소측의 시간경과가 중요한 타이밍으로, 어미소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초유중의 IgG농도가 저하하며, 초유중의 면역글로부린의 흡수효율은 시간경과에 따라 저하하여 6시간에 40%, 12시간에 30%로 된다.

초유중의 면역글로부린이 송아지 혈청 내 이행은 초유를 포유 후 10~14시간에서 성우와 같이 1일 최고 수준으로 되고, 그 후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저하되어 3~7일경에는 성우와 같게 된다. 어미소로부터의 이행항체는 일정 시간과 함께 소실되나 송아지는 흉선, 골수, 림파절 등이 면역담당기관의 발육으로 자체 면역을 발생하여 성장한다.

표 2. 초유중의 면역글로부린의 송아지 혈청에의 이행(Molla, 1978; 단위 g/ℓ)

면역글로부린 채혈 시기	IgG	IgM	IgA	총량
포유 전	0.32	0.36	0.06	0.74
포유 후				
6시간	0.32	0.36	0.06	0.74
10시간	12.77	2.25	2.8	17.82
14시간	17.52	3.26	6.34	27.12
1일	21.72	4.62	5.4	31.74
3일	20.23	3.47	1.89	25.59
7일	13.14	1.51	0.51	15.16
14일	16.23	1.37	0.38	17.98
21일	13.96	1.94	0.32	16.22

3. 송아지의 질병관찰과 대처요령

가. 송아지의 질병관찰과 위생대책

포유 육성기에 있어서 질병은 송아지의 발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일상의 건강관찰과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만약에 질병에 걸리면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표 3. 송아지 건강관찰의 방법

항목	정상	이상	의심되는 질병 및 상태
원기 식욕	식욕왕성 원기	식욕부진·감소된 경우 우군으로부터 떨어져 있음	소화기병·발열성질환·치아질환 영양장애
거동	활발 보행은 가벼움	불안정, 노책, 침울 흥분, 경련, 선회 마비성 파행, 보행이상 관절 부종	장의 통증·중독 감염증·B1결핍증 발굽질환·타박·염좌·관절염·대사성 질환
체온	신생자우 38.5~40.5℃ 송아지 38.0~39.5℃	41.0℃이상 40.0℃이상	세균·바이러스성 질환·호흡기질환
호흡	10~30회/분	호흡곤란·복식호흡 호흡수 증가	심한 호흡기 질환·기관 협착 호흡기 질환
반주	6~8회/일 반주의 개시는식후 30~70분 반주지속시간 40~50분/회	감소	식체·고창증·위장염 열성질환(발열시)
비경	적당히 습윤 하고 차갑다	건조 비루	열성 질환 호흡기 질환(폐렴 등)
눈	온화하고 활기가 있다	다량의 눈물, 눈곱 낀 점막의 황색 결막의 충혈	호흡기 질환의 초기·결막염·유행열 황달 빈혈·내부기생충증·영양장애
피모	광택있다	광택없고 탈모 음모선단부에 백색 작은 결석 부착	영양장애·피부병 노결석증

나. 설사병의 원인, 종류와 대처 요령

태어난 송아지는 첫 2주간은 단위(單胃)로, 급여된 우유는 4위에서만 소화되며, 소화효소는 4위에서 방출되어 지방, 탄수화물 및 단백질을 분해한다. 설사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송아지가 삼키게 되면 장에 감염(몸안에 침입)해서 악화될 수 있다. 이 때 세균에게는 큰 장애가 2가지가 있는데 제 1관문은 제 4위의 위산에 의한 살균작용, 제 2관문은 장내의 장내세균과의 대항이다. 앞선 2개의 방어기능이 완전하다면 송아지의 설사병의 발생율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송아지의 설사병은 병원성이 특히 강한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설사병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성 설사병 등의 비감염성 설사병도 발생한다.

표 4. 감염성 설사병의 종류 및 성상

질병명	로타	코로나	아데노	대장균	콕시듐	살모넬라	장독혈증
변의 성상	수양	수양	수양	진흙상	수양	수양	혈액양
변의 색	무색	유황색	회백색	황백색	다갈색	황회백색	암적색
혈액	×	○	○	○	○	○	○
냄새	무	무	악취	악취	비린내	악취	악취
호흡기증상			있음			있음	있음
발열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미열	높음	높음
특이 증상	탈수	탈수	허약자우 증후군	혼합감염	집단발생	악성 완고함	돌연사
발생	신생자	신생자	신생자	신생자	포유중	포유중	이유전후
계절	겨울	겨울	겨울	여름	봄	계절무관	여름

표 5. 비감염성 설사병의 종류 및 성상

분류		원인
소화 불량성[설 사병]	식이성 (비소화변)	불규칙적인 급여·급수에 의한 장 연동 이상
	지방성 (백색진흙상변)	지방소화효소, 담즙분비부족, 세균(특히 대장균)의 이상 증식
	부패성 (부패취·암색진흙상변)	과잉 또는 비소화 단백질의 섭취, 소화효소의 분비장애
	발효성 (산취·담갈색변거품함유)	과잉 또는 비소화 단백질의 섭취, 소화효소의 분비장애, 소화 불량으로 생긴 발효효소의 자극에 의한 장연동향진과 삼투압 상승이 호흡부전을 유발
위궤양성 설사병 (비소화변)		제 1위~4위의 기능적 및 기질적 장애(산성증, 위점막 미란, 궤양, 변비, 전위, 염전)에 의한 내용물의 통과시간의 변화
신경성 설사병 (비소화변)		환경 및 사육관리의 부적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미주신경을 흥분시켜 장연동 향진이나 소화효소분비이상을 초래

이상과 같이 한우 송아지 질병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바, 우리 한우를 사육농가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보유했 한우 송아지의 질병예방과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무허가축사 상담 사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본 지는 각 사항별 주요문답을 연속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화시 개발행위 허가

1. 주요 내용

1)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 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나. 「건축법」 제 57조 제 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2. 주요 문답내용

문 1 농장내 축사앞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문제없는가?

답 1 축사는 아니지만 농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 허가대상임. 다만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포장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 2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는 토지 660㎡이상의 형질변경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료가 1,0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개발행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답 2 건축허가, 토지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 자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한시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유예하는 부분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문 3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도시계획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 면제가 되는가?

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60㎡이상의 토질형질 변경 시 도시계획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시설

1. 주요내용

- 1) 건축연도가 2015.4.27. 이전 축사에 대한 방역시설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모두 제외됨.
- 2) 방역시설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모두 제외 가능.

2. 주요 문답내용

문 1 방역시설과 같은 가설건축물도 땅에 고정시켜서 튼튼하게 해 놓고 전기시설이 들어가면 일반건축물이 확실한데 이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가?

답 1 방역시설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나 가설건축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일반 건축물로 처리한다.

문 2 방역시설에서 건폐율 제외기준은 2015.4.27. 이전에 설치된 소독시설 기준인지 아니면 축사기준인지?

답 2 2015.04.27. 이전에 설치된 축사기준이다.

문 3 축사의 벽에 소독시설을 붙여서 지을 경우 건축면적에서 빠질 수 있는가?

답 3 소독시설은 건축면적, 바닥면적 모두 제외된다.

타 법과의 관계

I.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 주요내용

- 1) 축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며, 연면적 33㎡이상은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설치
- 2) 연면적 3,000㎡이상은 옥내소화전 설치

2. 주요 문답내용

문 1 신고된 축사들을 연결한 경우 대형면적이 되어 소방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가?

답 1 축사는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연면적 33㎡이상인 축사는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 3,000㎡이상은 옥내소화전 설치가 되어야 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다만, 축사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상수설비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소방시설법 제18조). 소방시설법 위배여부는 협의가 진행중이다.

문 2 소방시설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축사를 여러 동으로 건설했다가 축사와 축사사

이를 연결하여 단일 축사가 된 경우 소방법 적용은?

답2 현재 안전에 대하여 강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축사에도 소방방재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축사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다.

문3 건축허가시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인가?

답3 연면적 400m²이상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II. 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1. 주요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보전관리지역 5,000m²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m²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m²이상, 농림지역 7,500m²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m²이상

2. 주요 문답내용

문1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사사육 신고면적 증가로 인해 5,000m²를 초과하는 경우(보전관리지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가?

답1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m²이상인 사업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이전에 받지 않는 경우 이번에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III. 개발제한구역법과의 관계

1. 주요내용

1) 생계로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0m²(수도권 및 부산권은 500m²)이하에서

-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운영할 수 있다.
- 2) 퇴비사의 경우도 300㎡까지 설치할 수 있다.

2. 주요 문답내용

문 1 개발제한 구역내 가축을 키우는 경우 적법화가 가능한가?

답 1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축사건축이 허용되지 않으나, 생계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운영할 수 있다.(1,000㎡까지)

문 2 개발제한 구역에서도 퇴비사를 설치할 수 있는가?

답 2 퇴비사는 기존 면적을 포함해 300㎡까지 설치할 수 있다.

문 3 그린벨트 내 3,000㎡이상의 축사가 모두 무허가이다. 적법화할 방법은 없는가?

답 3 개발제한 구역법엔 1,000㎡까지(비수도권)는 지자체장 허가하에 축사운영이 허용되므로 3,000㎡는 불가하다.

IV.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문 1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지역에는 한우농가가 많은데 축사 400㎡, 운동장 100~200㎡만 허용되고 있어서 양성화하기가 어렵다는 건의가 많다. 이 부분을 위한 추후 대책은?

답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축사를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상수원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축사는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다.(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한함)

기타 문의사항

I. 구거에 축사가 있는 경우

문 1 축사가 지적도상 구거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구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1 지적도상 구거표시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아서 쓰이지 않는 경우 구거의 변경 또는 용도폐지절차가 필요함. 구거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신청. 국유 구거이거나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 혹은 소하천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용도폐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 2 폐구거가 있는데 물이 흐르지는 않는다. 여기에 축사가 있는데 적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답 2 폐구거가 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이다. 첫 번째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흙관을 묻고, 땅을 평평하게 한 후 운영하는 방법, 두 번째로 구거폐지신청을 내어 폐구거를 용도폐지한 후 연고자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입을 추진하는 방법, 세 번째로 소유 땅의 일부에 대체구거를 만들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폐구거를 국가로부터 양여받는 방법이 있다.

문 3 구거를 옮기는데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인가?

답 3 구거 옮기는 것은 주민동의서가 구비서류가 아니므로 필요하지 않다.

II. 수질오염총량제 문제

문 1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했더니 오염총량제에 걸려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오염총량제가 관련이 있는가?

답 1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보고 결과에 따라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조치하기 바란다.

III. 천재지변, 폭설, 현대화사업 등

문 1 축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농어촌공사에서 배관공사 중 축사가 무너지고 보상 받음. 임시로 축사를 지어서 운영하다가 현대화사업 신청하려고 함. 축산업 등록 되어 있음

답 1 이러한 경우 재축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가축분뇨법에 따라 설치허가, 신고를 받은 배출시설은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및 화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사유로 동일 부지내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 가능

문 2 기존 허가축사가 있는데 현대화사업으로 철거 후 신축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답 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사유로 동일 부지내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할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에 이전에 허가된 배출시설과 동일한 규모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변경신고’에 해당한다.

문 3 재축의 경우 신고 및 허가대상 규모는?

답 3 재축도 신축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축신고 및 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소 관련 꿈 해몽



소 꿈은 예로부터 집안의 길흉과 연결되는 꿈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는 집안의 재산목록 1호로 여겨졌고, 생구(生口)라는 이름으로 집안 식구의 일원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 꿈은 재물을 상징하기에 꿈속에서 소가 집안으로 들어오거나 붙들어 매는 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며, 밖으로 나가 버리면 재물을 잃어버린 불길한 징조로 여겨집니다. 소 꿈은 조상을 상징, 조상이 후손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꿈속에서 가장 좋은 소는 누렁소이며, 검은 소나 점박이 소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 꿈은 아들을 갖게 되는 태몽이 주류를 이루고, 태몽이 아닌 소 꿈은 권세나 재물, 믿음, 협조, 희망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민족과 한우>

소를 집안으로 데려오는 꿈

-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결혼하거나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큰 소 두 마리가 교미하는 꿈

- 태몽이거나 재물이 들어온다.

소가 수렁이나 함정에 빠지는 꿈

- 가산이 기울었거나 어려운 집안이 다시 복구된다.

소가 자기를 죽이는 꿈

-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소를 타고 산에 오르는 꿈

-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귀한 신분에 오르게 된다.

소싸움을 구경하는 꿈

- 이념이나 경쟁 등을 의미하며 어떤 일의 성패를 암시한다.

황소가 언덕이나 산에 오르는 꿈

-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재물이 들어 올 징조로 길몽이다.

소가 자기를 쓰러뜨리는 꿈

- 빚을 지게 되거나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소를 끌고 가는 꿈

- 새로운 사람을 맞아들이거나 재물을 얻게 될 길몽이다.

소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 큰 부자가 될 징조이다.

소가 문밖으로 나가는 꿈

- 송사가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조짐이 있다.

소를 타고 가다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꿈

- 자신의 세력이 미치는 곳이나 사업체 등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자신이 소를 이끌고 산에 오르는 꿈

- 자신을 내세울 일이 생기고 재물이 생긴다.

황소가 송아지를 낳는 꿈

- 수험생은 합격을, 직장인은 이동수가 있다. 소원이 성취되고 재수가 좋아진다.

다른 집 소를 몰래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꿈

-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결혼이나 임신을 암시한다.

평화롭게 소들이 놀고 있는 꿈

- 많은 사람들과 상의할 일이 생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

소를 잡는 꿈

-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된다.

누런 암소가 검정 송아지를 낳는 꿈

- 오랜 고생 끝에 결실을 맺게 된다.

기르던 소를 팔고 더 좋은 소를 사오는 꿈

- 새로운 집을 장만하게 되거나 재물을 얻게 된다.

소가 밭을 가는 꿈

- 협력자를 만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됨을 암시한다.

황소 꿈

- 태몽이면 아들을 얻게 되고, 소가 크고 잘 생겼으면 태어날 아들이 큰 인물이 된다.

소를 타고 길을 가는 꿈

-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서 권리를 얻게 되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소를 죽이는 꿈

- 추진 중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소가 길을 막아서는 꿈

- 합격이나 당선 등 좋은 일들이 생길 징조이다.

소를 사는 꿈

- 며느리나 사위를 보게 되거나 재물을 얻게 된다.

소가 집을 나가거나 집 나간 소를 찾아 헤매는 꿈

-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소가 용변을 보는 꿈

-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소가 자신을 보며 웃는 꿈

- 집안 식구나 자신과 관계되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게 됨을 암시한다.

조상과 함께 소가 보이는 꿈

- 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거나 사업가로 성공할 자녀가 태어날 징조이다.

소달구지에 쌀을 가득 싣고 들어오는 꿈

- 집안에 재물과 경사가 있을 길몽이다.

소뿔에 받히는 꿈

-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됨을 암시한다.

소뿔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본 꿈

- 관직에 오르거나 승진 등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죽은 소를 묻는 꿈

-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다.

소가 사람처럼 말하는 꿈

- 훌륭한 문학작품이나 예술품 등을 창작하게 될 징조이다.

황소가 커다란 바위를 뿔로 들이받아 굴린 꿈

-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게 되고 재수가 좋은 길몽이다.

여러 사람이 소를 잡아 고기를 자르는 꿈

- 주위 여러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분배할 일이 생기게 된다.

소를 기르거나 사는 꿈

- 길몽으로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좋은 일이 있게 된다.

소를 끌고 와서 기둥에 매어 놓은 꿈

- 재물이 들어오거나 결혼하게 된다.

소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꿈

- 횡재수가 따르게 된다.

자기 소가 자신을 죽이는 꿈

- 가정이 번창하고 하는 사업이 성공한다.

소를 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꿈

- 기쁜 소식이나 일이 생기게 된다.

늙은 소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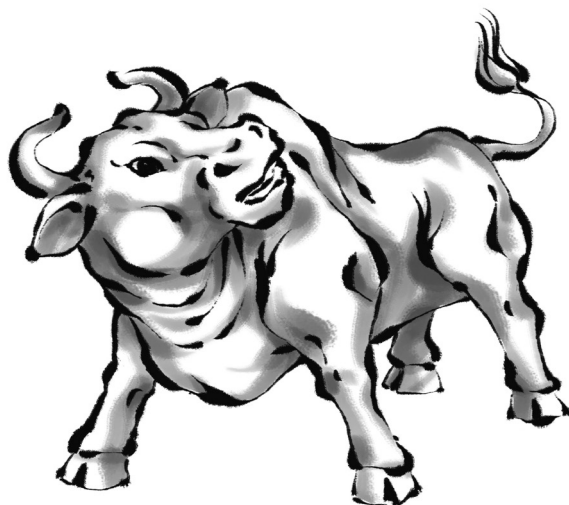
- 부귀해짐을 암시해 주는 길몽이다.

소꼬리를 잡고 놀다가 똥 벼락을 맞는 꿈

- 대성하고 부를 누리게 될 길몽이다.

황소 목에 똥칠이 되어 있는 꿈

- 길몽 중의 길몽으로 새로운 사업에 성공하게 된다.



한우협회 직거래 유통망으로 출하하십시오!

한우협회 직거래 유통망은 경매를 없애 상장수수료 부담이 없어 마리당 평균 12만원의 절감효과(800만원/1두)를 얻을 수 있으며 지육가격은 음성공판장 기준으로 적용해 정산합니다. 부산물가격은 4대공판장(부천, 음성, 고령, 나주) 평균가격 기준으로 정산하며 육량지수에 따라 장려금도 지급합니다.

'직거래 유통망' 도축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출하 신청방법

◆ 출하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출하신청 : 출하 전 14~30일전 신청
- 시·군지부를 통해서 협회로 접수
- 신청서 접수 : Fax 02)525-1054
- 부득이한 사유로 유선 접수할 경우에는 시·군지 부장을 통해 접수



정산기준

구분	정산조건	비고
기준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공판장 평균가 판정일 포함 전 7일 평균 	월, 토요일 제외
인센티브 (장려금)	○육량지수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이상 70미만 300원 • 70이상 71미만 400원 • 71이상 72미만 500원 • 72이상 600원 Kg당 지급 	지육중량 370~520Kg만 지급
패널티 (공제)	○하자육 Kg당 1,000원 공제 ○육량 패널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이상 59미만 -300원 • 55이상 57미만 -400원 • 50이상 55미만 -500원 • 50미만 -600원 Kg당 공제 	
부산물 정산	○4대 공판장(부천, 음성, 고령, 나주) 평균가격 적용	단 우피는 도축장 가격 적용
기타	○친환경(무항생제)인증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만원/두 지급 ○출하운송비 보조 : 15,000원/두	

▶문의 : (02)525-1053 (내선214) 유통사업국



전국한우협회